

고향사랑기부제 4년차, 제도 성숙을 향한 전환점

유보람 부연구위원

주요내용

- 고향사랑기부제의 양적 성장과 참여 기반 확장**
 - 지난 3년간 모든 지자체에서 모금액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,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단위 제도로 안정적인 확산 국면에 진입하면서 2025년에는 총모금액 1,515억 원, 모금건수 139만 건으로 제도 시행 첫해 대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함
 - 특히,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참여 확대와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의 지속적 증가를 바탕으로, 고향사랑기부제는 소수의 고액 기부자에 의존하지 않고 다수 시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대중적 기부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
- 사회적 연대 기반 기부 참여 확대**
 - 전체 기부금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전반으로 기부가 확산되고,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지정기부 집중 사례가 나타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기부 참여 수단으로도 기능하고 있음
 - 2025년 상반기 모금액과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재난지역 중심의 기부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, 지정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공공적 수요를 연결하는 연대형 공공기부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줌
- 양적 성장을 넘어 제도 성숙을 위한 질적 전환 노력 필요**
 - 모금 규모와 참여가 확대된 현 단계에서는 일회성·이벤트성 기부를 넘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, 기부의 의미와 성과를 시민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
 - 청년층·소액 기부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참여 기반의 지속성을 확보하고, 지정기부를 재난 대응·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적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공공기부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정합성과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함
 - 지역 간 모금 규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우수사례 공유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01

고향사랑기부제, 전국 단위 제도로 안착



고향사랑기부제 3년의 성과와 시사점

- 지난 3년간 모든 지자체에서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증가하며,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단위 제도로써 안정적 확산 국면에 진입함
- 제도 시행 첫 해(2023년) 대비 모금액은 132.9%, 모금 건수는 164.5% 증가하여, 2025년 총 모금액은 1,515억 원, 모금 건수는 139만 건으로 확대됨(행정안전부, 2026)
 - 전국 지방재정확충 수준은 2023년 약 226억원에서 2024년 326억 원 수준으로 확대됨¹⁾



참여 기반의 저변 확대

- 기부 참여는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지 않으면서도, 특히 20~30대 중심의 청년층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세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
- 기부 금액 측면에서는 전액 세액공제 구간에 해당하는 소액 기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, 제도가 소수의 고액 기부자 보다 다수의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임을 시사함
 -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 건수는 2023년 51만 건(96.9%)에서 2024년 76만 건(98.1%), 2025년 137만 건(98.4%)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, 이러한 변화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보여줌(행정안전부, 2026)

02

기부 흐름을 통해 본 지역균형 성장의 가능성



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모금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 성장에 기여

-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확대되어,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는 지역균형 성장의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
- '25년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부금이 약 699.8억 원으로 첫 해 대비 133% 증가함
- '25년 인구감소지역(89개)의 평균 모금액은 7.6억 원으로 2023년 이후 점진적 증가 추이를 나타냄

〈 지역균형성장 관점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(2023~2025) 〉

(단위: 억 원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증가율('23-'25)
모금액 전체	650	879	1,515	133%
수도권 → 非수도권	233.8	339.3	699.8	199%
인구감소지역(89개) 평균	3.8	4.7	7.6	100%

자료 : 행정안전부(2025b, 2026)

1) 2023년, 2024년 내부 자료 기준 분석 결과이며, 2025년 추후 분석 예정임

03

기부를 넘어 연대로 : 공공기부의 새로운 가능성



사회적 연대 기반의 기부 참여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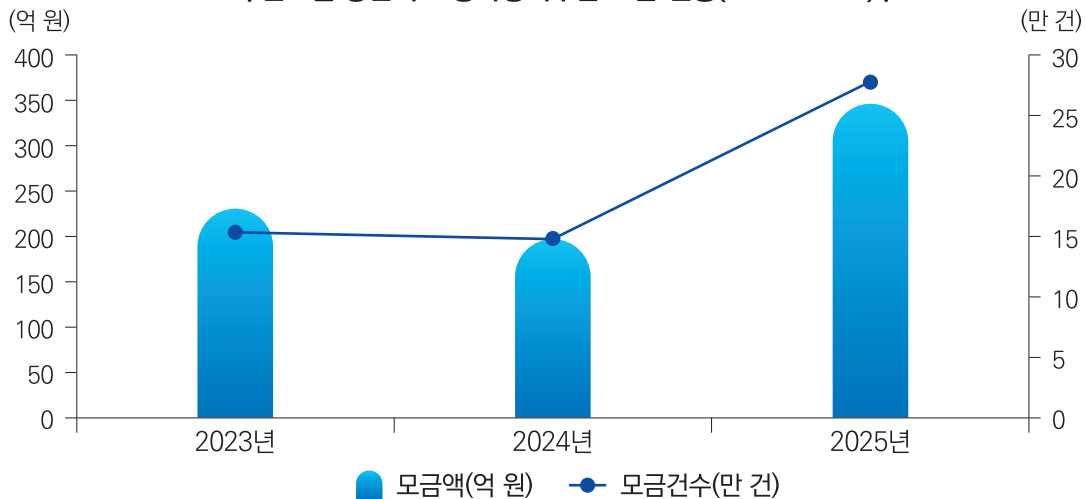
- 2025년 전체 고향사랑기부금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전반으로 기부가 확산되며, 고향사랑 기부제가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기부 참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
-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지정기부 집중 사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상황에서 지역을 지원하는 연대형 공공기부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해 줌



상반기 모금 집중 현황을 통해 본 특별재난지역 중심의 기부 흐름

- 연간 상반기 모금 실적을 비교한 결과, 2025년 상반기에는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모금 규모가 뚜렷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
 - 2023년 상반기는 233.1억 원(15.5만 건), 2024년 상반기는 199.8억 원(14.8만 건), 2025년 상반기는 348.8억 원(27.9만 건)

〈 연도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(2023~2025) 〉



자료 : 행정안전부(2025a)

- 월별 모금 현황을 보면 3월과 4월에 모금액과 모금 건수가 집중되며, 상반기 전체 모금의 절반 이상이 이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
 - 특히 3~4월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기부금이 확대되어, 해당 기간 총 모금액(184억 원)의 약 44.6%가 특별재난지역 8곳의 모금액(82억 원)에 해당함



공공기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가능성

- 기부 참여 확대와 지정기부 사례 축적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향후 재난 대응, 지역 현안 해결 등 공공적 수요를 연결하는 공공기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



지정기부를 통한 사회적 연대 확장과 취약계층 지원의 강화

-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는 다양한 기금사업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, 특히 2024년 6월 지정기부제 도입 이후 지정기부를 활용한 기금사업이 확대되고 있음
- 기금사업 중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 비중이 가장 높아,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간·정부 간 연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공기부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

〈 지정기부사업 추진 현황(2025) 〉

(단위 : 개)

구분	계	취약계층· 청소년 지원	문화·예술· 보건 증진	지역공동체 활성화	그 외 주민 복지 증진
계	226(100%)	120(53.1%)	33(14.6%)	8(3.5%)	65(28.8%)
진행 중	86	41	21	-	24
완료	140	79	12	8	41

자료 : 행정안전부(2026)

04

제도 성숙을 향한 발전 과제



양적 성장 이후, 질적 전환으로의 필요성

- 모금 규모와 참여가 확대된 만큼, 일회성·이벤트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함
- 기부 동기가 세제 혜택 등의 특정 이슈에 한정되지 않도록, 기부의 의미와 성과가 시민에게 명확히 전달되는 체계가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기금사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



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

- 모금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별 건수나 지정 기부사업 발굴 등 관심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, 향후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 - 2024년 기준 평균 모금 규모가 가장 높은 82개 군(郡) 지역 현황 비교 결과 65.9%(54곳)는 전국 평균 모금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로 나타남(유보람·전영준, 2025)
- 특히 제도 활용이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, 우수 자치단체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모금 및 기금사업 운영 전략을 학습·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됨



참여 기반의 지속성 확보

- 청년층과 소액 기부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참여 기반을 유지·확대하기 위해, 재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소통·피드백 체계 강화가 요구됨
- 기부 결과와 활용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제도에 대한 신뢰와 재참여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각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이 요구됨



지정기부의 전략적 활용과 기금사업 관리 강화

- 특히, 지정기부는 재난 대응,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적 수요를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역할하고 있는 만큼, 자치단체별 기금사업의 목적성과 성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
- 기금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,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 기획을 통해 기부금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



공공기부 플랫폼으로의 단계적 발전

-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현안과 기부자를 연결하는 공공기부 플랫폼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제도 운영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함
- 향후에는 재난 대응, 복지, 지역 현안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

〈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과제 〉

발전 과제	현황	정책적 시사점
양적 성장 이후 질적 전환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벤트성 기부에서 지속 참여 구조 전환 필요 • 기부 의미와 성과 전달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금사업 성과 중심의 질적 전환 필요
지역 간 격차 완화 지원체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별 모금 역량·지정기부 발굴 격차 존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• 우수사례 공유 및 학습체계 구축
참여 기반 지속성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년·소액 기부 중심 참여 기반 유지 필요 • 재기부 유도 장치 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부자 피드백 시스템 강화 • 성과정보 공개 및 신뢰 제고
지정기부 전략화 및 기금사업 관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난·공공수요 대응 수단으로 중요성 강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금사업 성과관리 체계화 •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 유도
공공기부 플랫폼으로 단계적 발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난·복지·지역 현안과 연계된 공공기부 플랫폼으로서 가능성 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정기부·기금사업 관리 고도화

자료 : 저자 작성

참고문헌

- 행정안전부(2026) “고향사랑기부금 92%가 지방으로 1,500억원 고향사랑기부 균형발전 불씨.” 1월 29일
- 행정안전부(2025a) “고향사랑의 마음,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지자체로 세 배 넘게 모였다.” 1월 22일
- 행정안전부(2025b) “고향사랑기부로 붙여넣은 지역활력, 2025년 상반기 모금결과 공개.” 7월 17일
- 유보람·전영준(2025) 고향사랑기부제 성과에 대한 지역특성과 정책 조합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. 지역사회학. 한국지방자치학회 발표논문.

내용문의

-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부연구위원(033-769-9872, boram3884@krila.re.kr)